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편찬*

박 용 조
진주교육대학교

I. 들어가는 글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 23일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 고시 제2009-41 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으로, 종전까지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불렸던 것이다. 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비전이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습의 효율성 제고, 인성 교육의 추구, 기초 교육의 충실과 핵심 역량 강화, 학교 교육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형식적으로는 ‘기본 계획 → 기초 연구 → 교육과정 시안 → 교육과정 심의’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동안의 교육과정 개발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절차는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도 되기 전에 개발되었다는 점이 다. 기존의 교육과정을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현장 적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해왔으나 이러한 전통에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주요한 기준인 학습자의 발달이라는 교육의 논리를 소극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학문적 견해나 또는 이에 대한 이론적 재해석을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교과군제와 집중이수제, 인성 교육과 기초 교육의 강화, 학교 교육 다양화 등과 같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에 초점을 맞춘 개정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당면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현저하게 경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학년군(群)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학년군이란 초등학교를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개 학년군으로 설정하여 학년별, 학기별, 분기별 집중 이수를 통해 학생들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학습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것이다.

* 본 내용은 2011 국정도서 편찬기관 워크숍과 초등 사회과 편찬 계획서 및 그 동안의 편찬 진행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이에 따라 사회과 교과서의 편찬 방향 또한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첫째, 교과군제와 집중이수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사회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3-4학년, 5-6학년이 하나의 학년군으로 각 군별로 4개의 교과서를 발행하여 학교의 선택에 따라 4개의 교과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직전의 교육과정과 성격,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교육 목표 등이 비슷하고 각 교과와 성격이나 목표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과서의 개발을 위하여 '사회과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개발·보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셋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국정교과서였던 사회과 탐구는 편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예상치 못한 커다란 변화로서 사회과 교과서의 편찬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을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교과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대한 기본 입장을 살펴보고, 3-4학년 사회과 교과서 편찬기관의 편찬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해 보기로 한다.

II. 교과부의 교과서 개발 방향

교과부는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표방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내실화란 다른 아닌 창의·인성교육의 추구하는 것이며, 이에 적합한 교과서가 현장 생활 중심의 교과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대하여 교과부가 제시하고 있는 추진 방침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정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하는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이 교과서 개발의 최우선 방침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및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창의·인성 교육에 적합하고 집중이수제와 학습량 20% 감축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 도서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과서를 학년군제로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 분권(分卷)형태로 제시한다. 사회과의 경우, 사회 3-1/3-2/4-1/4-2로 제시되던 것이 사회 3~4 ①/②/③/④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도서의 경우,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하며, 초등학교는 교과서와 같은 유형으로 국정도서이다. 참고로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검·인정 구분안을 보면 다음 <표 II-1>과 같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군 단위 교과서 체제로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종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제

7차 교육과정('97)에서 국정이 721종(69%)이던 것이, 2007 개정 교육과정('11.2)에서 334종(39%)로, 2009 개정 교육과정('11.8.9)에서는 53종(9%)로 국정도서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초등학교 보통 교과와 경우에도 인정교과서로의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시장성이 부족한 도서는 국정도서로 개발한다는 국정도서 개발 원칙에 따른 경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국정도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1> 학교급별 국정·검정·인정 구분안

학교급	교과서			지도서			계
	국정	검정	인정	국정	검정	인정	
초등학교	37	9	-	16	9	-	71
중학교	-	6	20	-	-	24	50
고등학교	-	18	450	-	-	-	468
계	37	33	470	16	9	24	589

2. 교육 현장의 적합성이 높은 교과서

학교급·교과의 특성에 따라 현장 적합성이 높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 도서를 개발해야 하고, 교과서를 통하여 교수학습 개선이 용이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이 학습자의 생활 경험과의 연계성이 높아야 하며 다양한 교육 매체의 활용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취지는 사회과 수업을 통해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주입식 위주 학습량을 대폭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은 세계관·국가관·직업관, 주제 중심 통합교육의 형태로 하였다. 이에 따른 교과서는 이론 요약 중심에서 현장·실생활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10.12.17.)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을 다른 교과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교과 교육과정 개편 방향

교과	교과 교육과정 개편 방향
국어	글쓰기 교육 강화, 통합적 언어사용 능력 강화
수학	논리력, 문제해결 과정 중심으로 개편
과학	실험탐구활동 강화, 공통교육과정은 융합방식으로 개선
영어	말하기, 듣기 중심의 의사소통능력 강화
사회·도덕	세계관·국가관·직업관, 주제 중심 통합교육
체육·예술	신체활동, 표현중심으로 개편

3.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학습의 효율성과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교과용 도서를 개발·보급하며, 삽화·사진·도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 제공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교과용 도서를 편찬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II-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 개발 일정

학교급	학년군	'11	'12	'13	'14	'15
초등	1~2	개발	개발/검토	적용		
	3~4		개발	개발/검정	적용	
	5~6			개발	개발/검정	적용

4. 질 높은 외형 체제를 갖춘 교과서

국정도서의 외형체제를 자율화하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교과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정도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편찬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향은 이러한 교과서의 개발은 특히 교과서 분량 제한 등의 규제로 내용이 부실하다는 2010년 국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구진·국정도서 편찬기관 관계자·현장교원 등이 참여하여 제시하고 있는 외형 체제 자율화 기본 방향 및 편찬제도 개선 방안은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현행과 개선안의 교과서 외형 체제 비교

구분	현행	개선(안)	비고
쪽 수	도서별 기준 쪽 수 제시 (20% 범위내 가감 가능)	편찬기관 결정	-학습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삽화·도표 등 참고 자료 풍부하게 제공 -학교급·교과 특성 반영
판형	4×6배판 ·초등과학: 편찬기관 결정	편찬기관 결정	
색도	교과서: 4도 ·지도서: 2도, 사회과부도: 6도	편찬기관 결정 ·4도 이상을 원칙으로	

또한, 초등학교 국정도서는 교과간 학년간 학습량 감축과 제재 중복 문제 등을 조정하기 위해 편찬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 교과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교과간·학년간 연계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방침을 살펴보면,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창의·인성 교육’이다. 그러나 창의성과 인성은 그동안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너무나 익숙한 주제이자 구호였다.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에 창의성과 인성의 요소가 강조되어 왔고 이러한 점이 사회과 교육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누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의 특징은 교과군제와 집중이수제의 적용에 따른 새로운 분권 형식의 교과서 체제, 현장 실생활 중심의 주제 중심 통합 교과서, 자유로운 판형의 교과서이다.

III.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개발

1. 초등 사회과 교과서 편찬 방향

1) 창의와 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나친 암기 중심 교육에서 학습하는 능력과 폭넓은 인성을 길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는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둔 교과서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바른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 내용을 갖춘 사회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 자신이 수업 방법의 혁신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수업의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 교과서는 다양한 사회과 수업 장면, 수업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강조되더라도, 사회과 교육의 본질은 문제해결, 탐구, 의사결정 등의 기본 학습 방법을 통한 비판적·창의적 사고를 기르는데 두어져야 한다. 새로운 사회 교과서는 다양한 수업방법을 아우르는 문제 해결형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문제 해결식 수업을 이끌어 갈 교수 매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과의 학습 내용은 관련성 없는 정보들의 연속적 나열로 이루어져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부절적인 정보 즉, 구조화되지 않은 정보는 기억 속에서 쉽게 망각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 구성을 방해한다. 사회 교과서를 통하여 의미 있는 학습을 실현하려면 학습 내용이 이야기식(내러티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많은 개념들을 포괄하는 일종의 사고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내용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효율적인 도구로서, 그 구조 속에 시간의 흐름, 논리적 관계, 인과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사회 교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구성주의 교육관에 입각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학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업은 지식의 전달과 암기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학습 과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해 가며, 수업의 결과 자신의 지식을 쌓아 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교과서는 이러한 열린 학습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 문제 해결형으로 활동 중심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직도 교과서는 교사 및 학부모,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육내용이자 교수학습 자료이다. 교과서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알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알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학습할 수 있고, 학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이 배운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친절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제5차 교육과정부터 사회과 교과서는 교과서와 사회과탐구 2종이 발행되고 있다. 사회 교과서는 사회과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 일반화 등 교육내용을 문제 해결형으로 개발한 교과서이고, 사회과 탐구는 사회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료와 활동으로 구성된 보조 교과서이다. 사회과를 가르치는 데 있어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교과서와 사회과 탐구를 따로 개발하지 않게 됨으로써, 이들을 한 권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과의 기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읽기 자료, 도표, 사진, 지도, 조사, 토의 등)를 함께 구성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습자의 능력,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한 사회 교과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은 그들의 흥미, 관심, 능력의 차이에 적합한 학습 과제의 선택이 보장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활동과 자료의 차별화된 제시가 반영되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처럼 사회과 교수학습에서 수준별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흥미, 적성, 학습 능력 등에 따른 수준별 수업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제재 내용 속에서 보충 및 심화 과정이 적절하게 조화된 사회과 교과서, 학생들의 흥미와 능력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수준별 활동의 전개가 가능한 사회과 교과서, 하나의 주제에 읽기와 활동을 하면서 저절로 핵심 개념을 터득할 수 있는 사회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사회과 교과서가 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학생들이 학습 과정의 단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생활할 중심의 사례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학생 중심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과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학습 의욕을 유지시켜서,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사회의 실제적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교사의 수행 평가가 통합되어 학생의 사고력 평가가 가능한 사회과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4) 정보화, 디지털 사회에 적합한 사회 교과서

21세기의 학생은 본격적인 멀티미디어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그들에게 인터넷은 생존의 도구이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수단이다. 사회 변화에 민감해야 할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이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미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회과의 교과 특성, 교수학습에서 교과서 의존도에 따라 사회과 교과서를 다양한 형태(학생 개인용, 교사용, 학급용, 학년용, 다학년용, 학교용 등)로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과는 초등학교 교과목 중 교과의 특성상 가장 많은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CD-TITLE, ON-LINE 전자 매체(디지털교과서)로 전환하여 나가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교육 전략’과 연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풍부한 사회과 교과서가 개발되고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질 좋은 사회과 교과서는 크게 내용 구성의 내적 측면에서 높은 질을 유지하고 있는 교과서이다. 질이 좋은 사회과 교과서는 내용 구성에서 사회과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구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경험을 잘 살린 교과서이다.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사회과 교과서는 외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흥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학생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일반도서 수준 이상으로 사회과 교과서도 편집이나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심미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주된 교육 자료이므로 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과서의 크기, 지질, 제본 등의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5)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분명한 사회 교과서

사회과의 목표는 크게 지식, 기능, 가치태도로 나눌 수 있다. 학생들이 사회과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암기 위주의 사회과 수업이다. 또한 교사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교과 중 하나로 사회과를 꼽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과는 교과 특성상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 그리고 일반화 등이 다른 교과에 비하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회과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면서도 핵심적인 개념 및 일반화 지식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과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흥미, 적성을 반영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교과서, 교사들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 학부모가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여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한다.

2. 교과서의 체제

1) 초등 사회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방향

3-4학년 사회 교과서는 학년 간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배경에 따라 내용 축소와 더불어 학년 내용 간의 유기적인 연계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개발한다.

첫째, 새로운 사회 교과서는 현행 2007년 개정 사회 교과서의 내용 구성 체계인 단원 → 주제의 흐름을 유지보완하여 개발한다. 이는 기존의 단원-주제-제재의 흐름이 학습량을 과다하게 하며, 각 주제 간 혹은 단원 간의 유기적인 흐름을 놓치고 파편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 토요일 휴업일 전면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현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은 기존 보다 더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학년군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에 따라 3학년에서도 현재의 4학년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가르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교과서는 3-4학년에서 중복 제시되는 내용의 삭제와 더불어 전 영역의 과감한 내용 감축과 함께 학년 간 내용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중요하다.

셋째, 사회과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개발 방식은 기존의 차시 중심의 파편적 개발 방식보다는 주제 중심, 혹은 사례 중심의 통합적 교과서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재 중심 내용 구성은 각 제재 하나 하나를 차시로 나누고 분리하여 학습하게 하여 학습할 내용도 많은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학습량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고 이에 따른 시간 부족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주제 및 사례 중심의 내용 구성은 개념이나 일반화 등 핵심 내용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적은 양의 주제를 학문 간 통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흥미와 관심에 따라 보다 상세하고 깊이 있는 선택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단원 및 주제에 대한 교사들의 내용 구성 자율성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3-4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개발은 다음과 같이 교과서의 편집 체제를 전개한다.

- ◆ 겉표지 ◆ 속표지 ◆ 차례
- ◆ 단원명 ◆ 단원 도입
- ◆ 주제명 및 주제 도입
- ◆ 주제 활동 및 정리
 - 무엇이 문제인가?(해결할 문제 제시)
 - 활동
 - 생각 마무리(아이디어 산출, 일반화된 지식이나 문제의 해결점, 표현 활동)
 - 주제 정리
 - 기능 코너(융통성 있게, 필요한 경우에만)
- ◆ 단원 정리 ◆ 인용 자료 목록 ◆ 참고 문헌

2) 단원의 구성

가. 단원 구성의 이념적 기초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단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① 21세기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민적 자질 육성의 목표를 단원 구성 및 주제 구성에 적극 반영한다.
- ②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 주변의 문제와 사회 전반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의 시대적 요청과 미래 지향적 관점을 단원 구성에 반영한다.
- ④ 학습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실제 사례나 용어, 현실 생활에서 관찰 가능한 내용을 구성한다.

나. 단원 구성의 학습 심리적 기초

단원 구성의 이념적 기초와 더불어 단원 구성을 위한 심리적 기초로는 학생의 흥미, 관심, 생활 경험을 기초로 보다 깊고 넓은 사회 현상의 인식, 개념적 접근과 일반화 인식이 가능하도록 단원을 구성한다. 아울러 단원 내용에 따라 학습 기능의 학습, 사회 쟁점의 탐구를 위한 단원도 구성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단원 구성 방식의 특징

가. 단원 도입

- ① 학생의 관점(흥미, 관심, 생활 경험)에서 지역과 사회, 다양한 주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여러 지역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의욕을 갖게 하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한다.
- ② 학생의 일상적 경험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과학적 탐구심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순차적 과정을 주제 및 내용 구성에 반영한다.
- ③ 단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쟁점 사항을 조사문제해결·탐구 자료로 제시하여 학생의 흥미·관심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 단원 구성 방식의 특징

- ① 단원 구성은 교육 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하되 수업 시수(주당 3시간)를 고려하여 실제적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화한다.

- ② 교육 현장에서의 재구성 의도한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대강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단원 구성은 현행 「사회」 교과서의 구성 체계인 ‘단원 →주제’의 순을 유지한다.
- ③ 단원 구성은 현행 교과서의 특징인 도입-전개-정리의 순서가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외면하고 교사 중심의 지도법에 치중한 결과임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조정하고 단원과 주제에 따른 친편일률적인 전개 방식을 지양한다.
- ④ 단원 내에는 3-5개의 주제를 도입하고 각 주제는 미리보기-문제 발견-정보 탐구(기능 습득)-새로운 아이디어 확인 및 정리의 틀을 유지한다. 이 때 단원 내의 각 주제들은 파편적인 관계를 벗어나 유기적인 관련을 맺도록 구성한다. 문제해결과정이 1차시 또는 2차시로 구성되도록 제시한다.
- ⑤ 단원 도입에서는 앞으로 단원에서 배울 학습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통하여 미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들은 자신의 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또 각 주제에서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⑥ 단원은 3-4개의 주제로 구성하되, 주제 마지막에 주제에서 배운 내용용어나 개념을 중심으로 주제 정리를 제시한다. 단원의 말미에는 전 주제에서 배운 일반화를 중심으로 단원 정리를 제시한다.
- ⑦ 고급 사고력과 탐구 기능 신장을 위하여 각 주제별로 필요한 곳에서 기능(Skill) 코너를 구성한다. 주제별로 반드시 기능코너를 제시할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제시한다.
- ⑧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통합적으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단원명이나 주제명을 흥미롭게 구성하고, 학습자의 시각을 고려한 가독성 있는 자료 제공에 주의를 기울인다. 현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워크시트 형식의 빈칸 제공, 획일적 형식, 어려운 질문의 나열 등을 최대한 지양하고 제시된 읽기 자료와 탐구 자료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발문을 사용하며, 주제별 개념과 원리를 주제 말미에 정리, 원리와 일반화 발견 및 해결을 위한 통합 자료를 본문 내에 통합 제시한다. 워크시트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하지 않는다(워크시트가 안될 경우만 활용한다. 그것도 아주 최소의 범위에서).

다. 단원 및 주제별 내용 전개 방식의 특징

각 단원 및 주제에 따른 교과서 내용 전개 방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각 영역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단원 도입(개관, 4쪽)

앞으로 단원에서 배울 학습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을 통하여 미리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들은 자신의 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또 각 주제에서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4쪽으로 구성하고 1차시로 활용한다. 처음 2쪽은 단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삽화, 사진, 그림, 시 등을 활용하여 2쪽에 걸쳐서 크게 제시하고 2쪽에 단원명과 주제명 4개를 제시한다. 또 2쪽은 단원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3-5줄로 집필하고, 각 주제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핵심적인 발문을 주제별로 1개씩 제시한다. 2쪽의 구성은 다양한 형태

(재미있는 이야기나 시, 삽화, 사진, 만화 등)로 구성한다. 발문은 주제를 포괄하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단원을 요약하거나 축약하는 내용 서술은 절대로 안 되고, 앞으로 배울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경험이나 사례 등)으로 제시한다.

② 주제명 및 주제 도입

주제명은 제시하고, 주제 도입은 하지 않는다. 주제명은 학습에 대한 흥미, 문제의식 및 탐구의욕을 유발하고, 학습과정과 활동을 시사하며, 학습을 통해 성취해야 할 성취수준을 함축하는 것으로 한다. 주제명은 명사형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면, ■ 우리 고장의 땅)

③ 주제별 내용 구성 (차시당 3-4쪽, 주제별로 짝수로 구성)

주제별 내용 구성은 문제해결활동(도입-진개-정리)으로 구성하며, 현장의 수업을 고려하여 1차시 또는 2차시로 구성한다. 차시에 따라 주제별로 3-4개의 문제해결과정으로 구성되며, 주제별로 3-5차시 수업으로 구성한다. 각 차시별 내용은 해당 주제를 학습하기 위한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활동 사례나 개념들을 다루도록 한다. 용어나 개념은 활동을 통해서 또는 읽기 자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획득되도록 한다. 읽기자료의 제목은 의문형으로 제시한다.

크게 무엇이 문제인가요?(해결할 문제 제시), 활동, 생각 마무리(아이디어 산출, 일반화된 지식이나 문제의 해결점, 표현 활동)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크게 '문제 확인', '문제 탐색 및 추구', '문제 해결 및 적용'의 단계라 할 수 있으며, 한 주제가 큰 차원(scale)에서 문제해결과정 혹은 탐구형 구조를 취하는 것이라면 한 차시의 내용 구성은 보다 작은 차원에서 문제 해결탐구 과정을 거치도록 의도한다. 전차시는 다음 차시의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선지식이 될 때 보다 바람직하다. 주제별 2-4차시는 상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주제의 내용 구성은 이야기 식으로 또는 캐릭터를 통한 활동으로, 또는 내용서술+활동으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한다.

차시를 구분하여 제시한다.(예: ■ 우리 고장의 땅(1차시)) 2차시로 문제해결과정을 제시할 경우 1차시 활동 후, 2차시 시작 부분에 차시구분표시(※)를 한다. 1단원은 60쪽 내외로 구성하고, 한 차시 당 3-4쪽으로 구성하고, 각 주제별로 짝수로 구성한다.

④ 주제 정리(1쪽)

2-4차시의 문제 해결 과정 후 주제정리 코너를 두고 각 차시별 학습의 주요 용어나 개념 및 아이디어, 원리들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주제 정리는 현행 교과서처럼 또 다른 문제나 활동을 두어 학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그 동안 배운 학습 활동의 용어나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일반화를 정리하는 내용은 단원 정리에 있으므로 주제에서 배운 용어나 개념 등을 중심으로 주제 정리를 구성하되, 부족할 경우 일반화 내용을 활용한다. 학습자들은 차시별

학습활동으로 알게 된 주요 학습 내용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주제정리는 주요 용어나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하되(1쪽), 개념이나 용어가 학습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한다. (예를 들면, 퍼즐, 만화, 보기에서 고르기, 사다리타기 등등). 수업 내용과 관련된 '활동'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토론이라든가, 역할극 만들기 등등. 개념이 없는 주제의 경우에는 관련 있는 다른 사례나 활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한다. 주제정리는 차시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각 주제별 마지막 차시에서 지도하므로 학습부담이 가지 않도록 한다.

⑤ 기능 코너(본문 내용에 포함.)

주제 학습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하는 코너로 사진, 도표, 통계, 그래프, 지도, 작품 등을 사회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조직하며 해석가능한 지를 제시한다. 기능 코너는 사례중심의 실질적 분석을 다루어도 좋고, 발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지를 심층적으로 다루어도 좋다. 반드시 기능 코너가 주제마다 제시될 필요는 없으며, 융통성 있게 꼭 필요한 기능이 있을 경우만 주제 안에 제시하고 학습에 부담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도록 한다.

⑥ 단원 정리(2쪽)

단원 정리는 2쪽으로 구성한다. 1쪽은 성취수준에 따른 일반화 내용을 쉬운말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단원도입에서 제시한 핵심발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또 1쪽은 전체 단원을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이나 심화활동을 제시한다. 단원 정리는 학습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그 동안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기타

- 주제별 내용에 따라 본문의 전개 방식을 다양하게 구성하고(단원집필책임자와 집필진의 합의를 토대로 일정한 방식을 구성함,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꼭 필요한 경우는 워크시트 형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가능한 지양한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교과서만 가지고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구체적이고 현실 생활에서 관찰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어린이 책을 참고하여 구성한다.
- 집필에 활용되는 자료는 꼭 출처를 적어둔다. 마무리된 뒤에 출처를 찾을 경우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읽기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넣되 학생들이 쉽고 흥미 있게 읽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도록 재구성

한다. 제목은 의문형(?)으로 한다. 읽기 자료는 본문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실제 사례나 용어 등을 설명할 때 넣을 것. 사회과탐구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읽기 자료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할 것. 읽기자료를 통해서 주요한 개념이나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작성한다.

- 주제 안에서는 통일성 있는 흐름이 필요하며, 주제 제시 방식은 주제의 특성에 따라(읽기자료, 스토리텔링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제시) 융통성 있게 구성한다.
- 내용상의 전개는 내용의 외연적인 확대보다는 우리 주변 및 학생들의 생활 주변과 관련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일상생활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는 사례를 가능한 넣지 않도록 한다.
-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내용이 없는 교과서가 되므로 특히 학생들의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하여 풍부한 사례를 제시한다.
- 지식을 구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귀납적 방법으로 텍스트 및 활동을 통해 지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펼침쪽, 캐릭터 스티커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 1차시 당 집필 쪽수는 3-4쪽 내외이고, 각 주제마다 짝수 쪽으로 통일한다.

IV. 나가는 글 : 편찬기관의 접근 방향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전통은 국가사회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학습자의 발달이라는 교육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상과 교실 수업이라는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가교(架橋)와 같은 것으로, 교육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는 위치에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도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국가사회적 요구와 오늘날 교실 수업 속에서 확인되는 학습자의 요구를 어떻게 통합하고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금번 사회과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주요 화두이며 사회과 교과서 편찬기관에 주어진 책무라고 본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군제를 추진하고 교육과정 해설서 및 사회과 탐구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분명히 새로운 도전이라고 본다. 반면,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을 주제 중심으로 통합하고 교과서의 판형을 자유롭게 열어 놓은 것은 편찬기관에 주어진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현장 적합성이 높은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편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초등학교 현장 경험이 충분한 연구집필진(집필진과 연구진의 초등학교 평균 교직 경력: 14.6년)을 구성하여 집필 내용의 현장 적합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집필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원별 집필책임제를 시행하고 단원집필책임자간, 단원내 집필진간의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단원 간, 단원 내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셋째, 집필진의 집필 의도가 분명히 전달되고 표현될 수 있도록 출판 기관에서 선정한 삽화가가 집필진 회의에 반드시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교과서의 심미적인 측면 및 판형과 관련하여서는 출판사의 북디자이너 및 삽화가가 관련 연구 및 집필진 회의 때 상시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편찬기관과 심의기관이 긍정적이면서 신속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On-Off 라인을 활용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여섯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이고, 국가사회적 요구를 민첩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형태의 부분 개정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 편찬이 미래의 교과서 편찬 및 개발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 편찬 및 개발 백서의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편찬기관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외부 환경에 의하여 본래의 편찬 의도가 왜곡되거나 집필 내용의 현장성과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내는 것 또한 교과서 편찬기관이 유념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2010. 1. 12.).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1년 업무보고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2010.12.17.).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국정도서 편찬 업무(2011. 11.).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국정도서 편찬기관 워크숍 자료집(2011. 11. 26.).